

# 내년 5·18 35주년 걱정된다

## 이사장 선출 또 연기... 후원회장은 4개월째 공백

### 기념행사 틀도 못잡아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서 광주민 중항쟁 35주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실있는 5·18 35주년 기념행사로 5월 정신을 알리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5·18 단체의 내용·인물만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5·18 35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끈이거야할 기념재단은 이사장도 선출하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기념 사업에 힘을 실어줄 후원회장은 4개월 째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기념재단 후원회는 이달 초 예정됐던 후원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일정을 다음달로 미뤘다. 정족수(80명)를 채우지 못했다는 게 공식적 이유지만 기존 후원회장이 지난 9월 이후 사임한 뒤 안팎으로 신임을 얻는 인물을 찾지 못한 게 근본적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게 5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1월 중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내세울만한 마땅한 후보자 및 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이견 등도 적지 않아 총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후원회가 5·18 기념재단 이사 15명 중 당면직 이사인 후원회장을 포함, 3명(20%)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다, 공식인 후원회장 외에 나머지 이사 2명의 임기(1월 25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결국 후원회 정상화가 5·18 기념재단 이사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 선출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당장, 5월 관련단체간 반목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임무 뿐 아니라 재단 이사장에 바라는 사·도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만한 인물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18 기념재단 이사회는 이날 5·18 기념재단 이사장 선출(안)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했다. 이사들이 후보

자 추천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으면서 다음달 12일로 이사회가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앞서,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제12회 이사장으로 결정됐지만 안 교수가 거절한 바 있다.

5·18 기념행사 35주년 행사위원회도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내년 진행할 기념행사의 기본적인 틀도 잡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기념행사 집행위원장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35주년 기념행사의 총괄책임자인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후원회장 등에 대한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자칫 35주년 기념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해당 단체가 사·도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 밥그릇만 챙기려다 전국적인 기념행사인 35주년 기념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29일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계 직원들이 충장로와 금남로 도로변 불법 주차차 차량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U대회 앞둔 광주 기초질서 확립 총력”

## 최종현 광주경찰청장 시민 의식 개선 로드맵 구상 “불법·무질서 없는 광주...도시 이미지 높이겠다”

“내년 열리는 국가적 행사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 질서 확립에 총력을 쏟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최종현(55)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내년 광주 경찰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법치인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첫 손에 꼽았다.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광주를 찾는 170개국 2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접하는 시민의 질서와 문화역량 등을 통해 광주의 이미지가 세계에 전파된다는 판단에서다. 전 세계인을 맞는 국가적 행사를 주최하면서 무질서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안된다는 게 최 청장 생각으로, 다음달 총경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기획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행사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법치인 준수 문화가 시민들 사이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감받는 치안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 지역 근무가 처음인데다, 지난 4일 취임해 부서별 업무 파악을 하는 데 바빴던 일정임에도, 이미 중점 치안 업무와 기

초 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구상해놓았다. 범시민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첫 단계로 내년 1~2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교육청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법 조성에 나선 이후 생활 주변의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는 식이다. 꼼꼼함과 치밀한 업무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또 향후 경찰의 불법 주·정차 및 신호위반 등 기초 질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기본적 질서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청장은 또 직원들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제기된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맞춤형 시민운동 등 참신한 정책을 제안받아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최 청장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광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기초·교통질서 위반 등으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세심한 치안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천외한 옷 도둑...가게 밖 의류 던져놓고 나가면서 쟁거



최종현 청장



○...생리 기간 도박을 참지 못하고 옷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50대 주부가 경찰서행.

○...2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56)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임모(여·65)씨의 의류매장에서 조끼와 재킷(시가 15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6차

# 여수제일교회 총격 속 비대위 구성·무사귀환 기원

## 에어아시아기 실종

### 정부 초계기 파견키로

에어아시아 항공기 실종과 관련,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전방위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다. 여수 출신 박성범(38)·이경화(36) 선교사 부부 등이 소속된 여수제일교회를 비롯, 지역사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기도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30일, 인도네시아 자바해 상공에서 실종된 에어아시아 항공기 수색 지원을 위한 초계기를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실종자 수색을 위해) P3-C 1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될 수 있으면 내일

오후에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측과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도 이날 선박 12척과 헬기 3대를 비롯한 공군기 5대, 함정 등을 동원해 육상과 해상에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싱가포르 역시 전함 C-130 수송기를 보낸 데 이어 해군 함정 2척을 추가했으며, 말레이시아는 해군 함정 3척과 C-130 수송기를 지원했다. 호주 정부 역시 초계기 1대를 파견해 실종기 기체 수색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 영국 등도 수색에 동참하거나 관련 전문가 파견 등으로 힘을 보탤 사를 밝혔다.

지역 사회 움직임도 분주하다. 실종된 여객기에 탄 것으로 확인된 박성범 선교사 가족이 소속된 여수제일교

회는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총격 속에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과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김성철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선교부, 대학생·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기도회도 열렸다.

신도들은 “박 선교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신앙심이 투철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선교사 가족 실종 소식이 전해진 뒤 교회에는 박 선교사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도들의 문의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종자 부모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은 TV 등을 통해 들려오는 관련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수시 등도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입찰 담합 182억 낙찰받은 11명 적발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민기호)는 29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 입찰사이트에서 담합, 182억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은 1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모두 83개 업체와 공모해 2011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등 한전, 국방부 등 공공기관 입찰사이트에서 미리 투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담합해 모두 680여차례에 걸쳐 182억원 상당의

물품구매 사업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업체들을 동원해 정해진 투찰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한 후 담합 주도자가 낙찰 업체 대신 물품구매 사업을 이행하고 낙찰업체에는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1636 걸고 **민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진검서연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주)콜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